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0. 12. 31

발행인 | 이남희

홈페이지 | www.cbwf.re.kr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실태와 코로나19 이후 지원과제

안종순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목차

1.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충북 여성 소상공인 최악 위기?
2.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실태
3.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 이용 현황
4. 맺음말

1.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¹⁾, 충북 여성 소상공인 최악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사업장 폐쇄 권고와 서비스업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 등)의 경영위기를 비롯해²⁾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영세한 소규모의 사업체에 몰려있는 여성 소상공인의 타격이 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업체의 사업주'를 말함 (법제처, 2017).

2) 남윤명·양서우(2020:3). "COVID-19 이후 충북지역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 충북 포커스 No. 178 (2020-6호), 충북연구원.

- 1997년 말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영세자영업자 일자리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수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여성 소상공인의 타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음³⁾
- 코로나19 이후 여성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생계의 어려움, 폐업 등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실태와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의 성별 이용 현황을 살펴본 후,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충북 여성 소상공인 현황

- 2017년 기준, 소상공인 수 전체 98,217명 가운데, 여성이 42,975명으로 43.8%, 남성이 55,242명으로 56.2%였음. 충북지역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 사업체 대표자 수(47,226명) 중 91%를 차지함⁴⁾
- [표 1]에서 보듯이 2017년 기준, 충북 전체 사업체 대표자 111,738명 중 여성 대표자는 총 47,226명으로 42.3%, 남성 대표자는 64,512명으로 57.7%였음. 2018년 기준, 충북 전체 사업체 대표자는 129,920명이며, 여성 대표자 수는 51,658명으로 39.7%임⁵⁾⁶⁾
- 2017년 여성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17,233개, 36.5%와 도소매업 12,623개, 26.7%로 전체 여성 사업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업종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음

[표 1] 충청북도 사업체 대표자 수와 소상공인 수 현황

(단위 : 명, %)

	2017년				2018년	
	전체 사업체 대표자 수		소상공인 수*		전체 사업체 대표자 수	
전체	111,738	100	98,217	100	129,920	100
여자	47,226	42.3	42,975	43.8	51,658	39.7
남자	64,512	57.7	55,242	56.2	78,264	60.3

주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29.6% (남성 22.2%, 여성 23.4%). * 2017년도 소상공인 통계는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 자료 참고함.

출처 : 충북 사업체 조사(202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

3) 김복순(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3월호(pp. 12-24), 한국노동연구원.

4)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12.08. 가결 심사보고서(충청북도, 2020)

5) 충청북도 사업체조사(2020).

6) 충북 전체 소상공인 수는 2018년 88,000명, 2019년 90,000명임(통계청, 2020).

- 충청북도의 성별 생존율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여성 창업자 수는 107,977명, 남성 76,428명으로 여성 수가 많지만, 5년 생존율은 여성 26.7%, 남성 31.7%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았음⁷⁾
- 이처럼 충청북도의 여성 소상공인은 영세한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창업 후 생존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부진의 타격을 여성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시급한 당면 과제임

2.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실태

- 소상공인 사업운영 실태 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⁸⁾, 먼저, 현재 사업체 운영의 하락기(쇠퇴기+폐업·업종 전환 고려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4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소상공인은 '폐업·업종 전환 고려기'로 응답한 경우가 25.6%로 남성 12.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개인면접 참여자들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운영에 타격이 큰 상황이며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니까 일단은 버텨보고. 이제 정 안 되면 폐업을 하던지 그래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꽃집들이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행사가 일단 없고 막 이러니까(60대 여성, 꽃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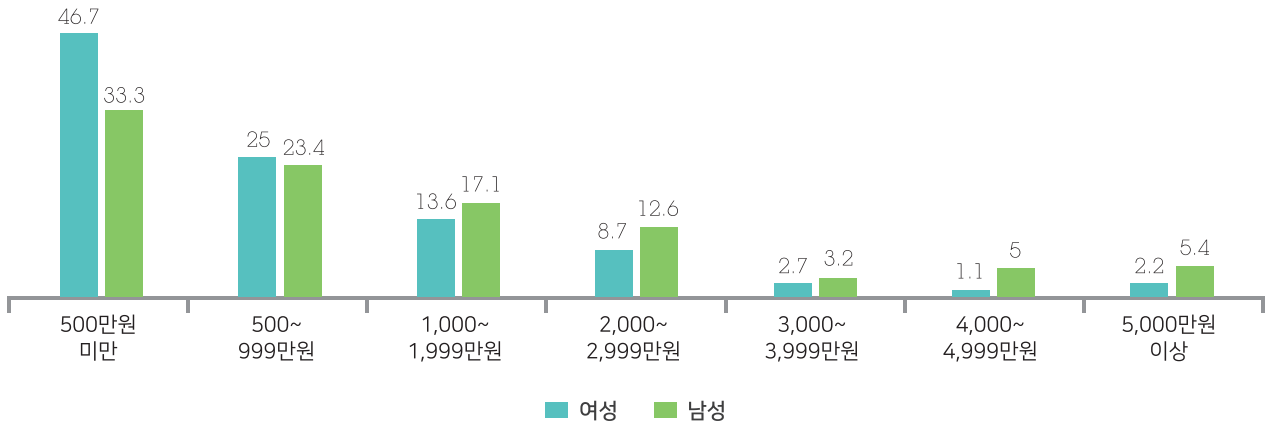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업도 고려할 수 있고요. 계속적인 그 그거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입 안 하고, 기존 인제 물건들 다 이렇게 소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뭐 봐서 그 인제 일반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뭐 새로운 아이템을 찾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50대 남성, 문구점 운영)

가게를 너무 안 돼 가지고 내놓긴 해봤어요. 이제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시설관리금도 이제 안 받는다고 내놓거든요. 뭐 집기류 이런 것도 다 새 걸로 바꾼 상태였는데도 이제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예 시설관리금 안 받는다고 내놓도 없더라고요. (30대 여성, 노래방 운영)

- 월평균 매출액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러나,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여성 46.7%, 남성 33.3%로 여성 소상공인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매출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성 소상공인 6.0%, 남성 소상공인 13.6%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았음

7)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2017:152-3).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충청북도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실태, 정책지원에 대한 욕구,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 이용현황과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려지역 청주시 소상공인 413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2020년 10월 19일~11월 11일 24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림 1] 성별에 따른 2020년 월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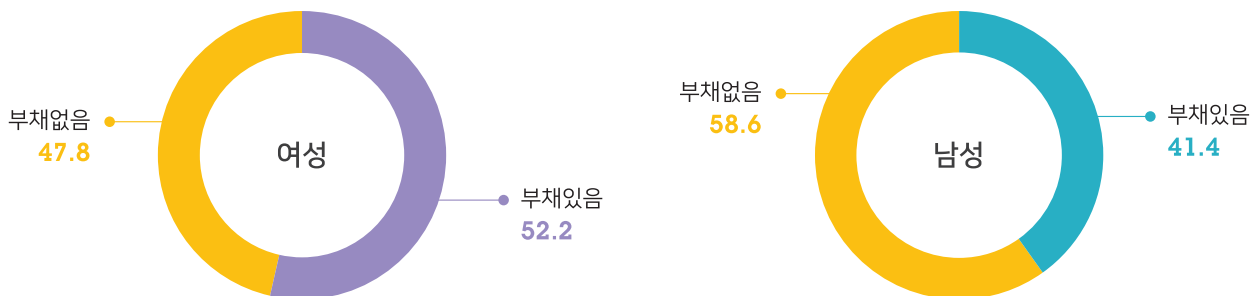
-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감소했음'이 67.2%로 높게 나타남. 여성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7%, 남성은 63.5%로 남성보다 약 8%p 더 많았음

[표 2]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감소했음	거의 변동 없음	증가했음	합계
전체		273(67.2)	111(27.3)	22(5.4)	406
성별	여성	132(71.7)	43(23.4)	9(4.9)	184
	남성	141(63.5)	68(30.6)	13(5.9)	222

- 최근 3년간 사업체 관련 부채(대출) 유무와 관련해서는 여성은 '부채 있음'이 52.2%로 남성 41.4%에 비해 10.8%p 높게 나타났음



[그림 2] 성별에 따른 최근 3년간 부채(대출) 유무

- 최근 3년간의 사업체 관련 부채(대출)의 주된 출처를 알아본 결과,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67.9%로 높게 나타남. '국가 정책자금'은 10.2%,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은 9.6%로 전체

응답 중 19.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친구·가족'이 8.6%, 카드대출이 3.7%였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서민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이 많으며, 국가와 지자체 정책자금 대출도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자금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표 3] 최근 3년간 사업체 관련 부채(대출) 출처

(단위 : 명, %)

구분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친구·가족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정책자금 (국가)	정책자금 (지자체)	합계
전체	102(54.5)	25(13.4)	16(8.6)	7(3.7)	19(10.2)	18(9.6)	187
성별	여성	48(50.0)	15(15.6)	8(8.3)	4(4.2)	11(11.5)	96
	남성	54(59.3)	10(11.0)	8(8.8)	3(3.3)	8(8.8)	91

-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1위가 '판매부진(32.0%)', 2위가 '소비심리 위축(28.4%)', 3위가 '인력확보 문제 (7.6%)'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매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에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성별로는 그 다음 4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자금 부족 및 조달문제'를, 남성은 '판로확보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답했음
-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신용보증, 자금융자 및 대출, 인력확보 및 활용, 판로확보나 영업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표 4]에서 보듯이 '신용보증을 받기가 더 어려움' 여성 33.7%, 남성 14.4%, '자금융자 및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움' 여성 31.0%, 남성 13.5%, '인력확보 및 활용이 더 어려움' 여성 31.5%, 남성 18.0%, '판로확보나 영업이 더 어려움' 여성 32.1%, 남성 19.4%로 나타남
 - 이는 여성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자금융자 및 대출, 인력확보 및 활용, 판로확보나 영업에서 실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성의 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남녀 인식 차이가 여성 사업주가 처한 사업운영 환경에 대한 남성의 이해도나 공감도가 낮은 것도 그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

[표 4] 여성 사업주의 사업운영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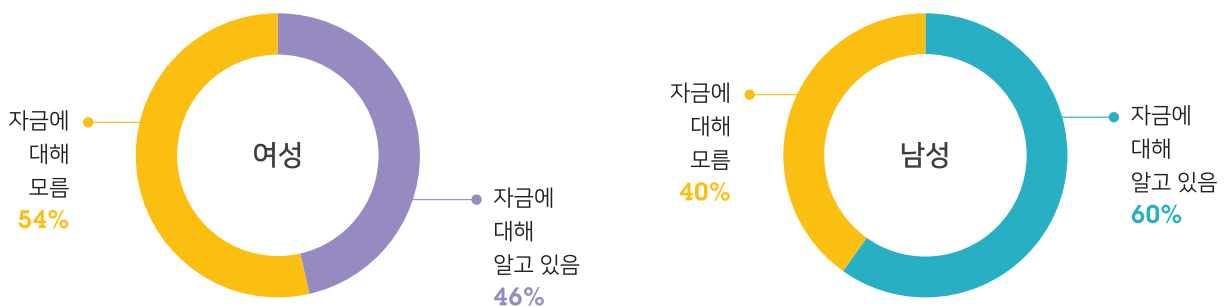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			
신용보증을 받기가 더 어려움	94(23.2)	312(76.8)	406
여성	62(33.7)	122(66.3)	184
남성	32(14.4)	190(85.6)	222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			
자금용자 및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움	87(21.4)	319(78.6)	406
여성	57(31.0)	127(69.0)	184
남성	30(13.5)	192(86.5)	222
인력확보 및 활용이 더 어려움	98(24.1)	308(75.9)	406
여성	58(31.5)	126(68.5)	184
남성	40(18.0)	182(82.0)	222
판로확보나 영업이 더 어려움	102(25.1)	304(74.9)	406
여성	59(32.1)	125(67.9)	184
남성	43(19.4)	179(80.6)	222

3.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이용 현황

- 충북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제도인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3.7%에 이릅니다. 여성의 경우 '자금에 대해 알고 있음'이 46.2%, 남성은 59.9%로 여성의 인지 비율이 남성에 비해 1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홍보 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이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용했음'이 43.5%였음.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이용했음'이 54.1%, 남성은 36.6%로 여성이 더 높았음.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 여성이 알고 있는 비율은 낮지만 인지 이후에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음을 시사함



[그림 3] 성별에 따른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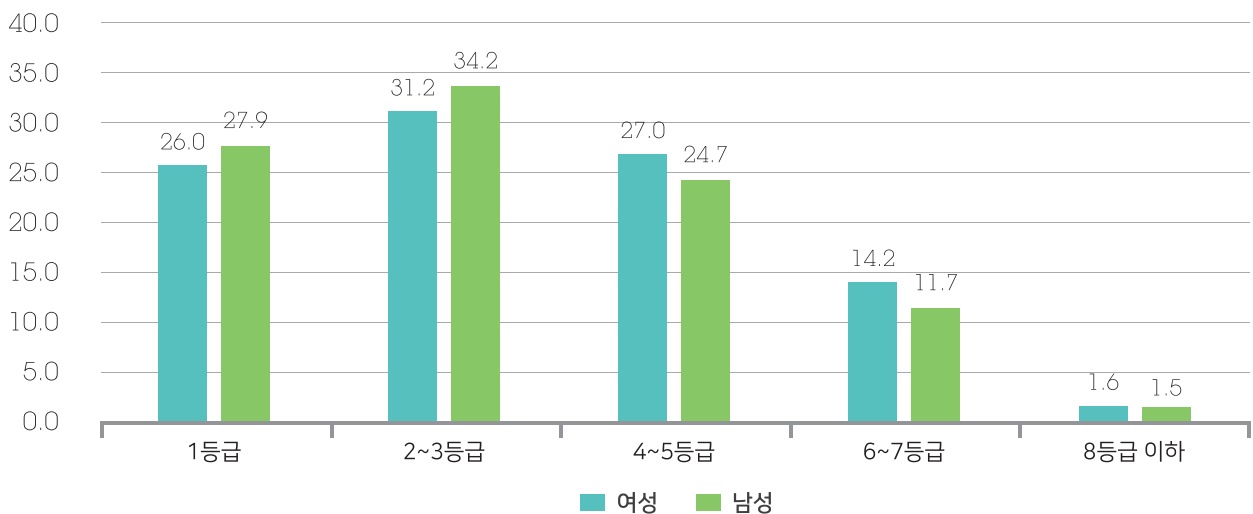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자 조사 결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참여자 남녀 대부분이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도 있다고 함. 다만, 어떤 사례자들은 보증수수료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며 추천의사가 반감되었다고 함

숨통이 트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인제 이자가 이제 싸다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버텨보고. 그래요 이제 정 안 되면 폐업을 하던지 그래야죠. (60대 여성, 꽃집운영)

도움이 됐죠. 저 다만 이제 그쪽에 보증료가 1%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3년차 미만의 기업들,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보증료 1%면 거기에 백만 원 가까이 떼더라고요. 보증료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중략)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 0.5%, 50프로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보증료가 거의 백만 원 보증료를 내야 된다는 게 조금 솔직히 추천하는 거는... 그거 때문에 좀 그래요. 추천은 한 반반? (40대 남성, 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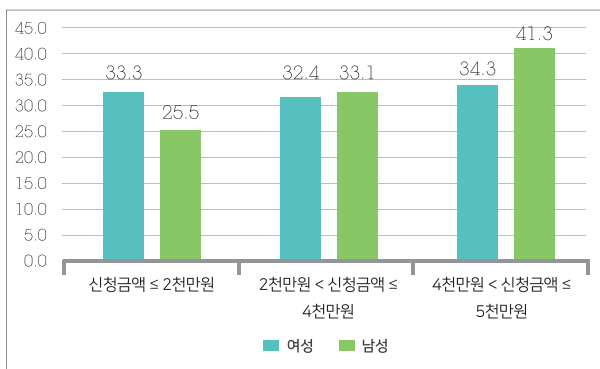
진입이 좀 더 간단해지면 좋겠어요. 뭔가 이게 뭐 증명해야 될 서류도 너무 많고... (50대 여성, 개인상담서비스)

-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과정에서 남성은 대체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 반면, 여성의 경우 서류준비나 절차 등에 대해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좀 더 친절한 설명과 응대를 요구하였음. 이는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성별 격차가 있음을 시사함
-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녀 모두 지원자금 금리인하, 지원금액 확대, 지원 자격요건 완화 순으로 요구하였고,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 부담 완화, 경영자금 융자·보증 지원 확대 순으로 조사됨
-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이용 현황은 2019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먼저 신청자 분포를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신용등급별, 신청금액 수준별, 영업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별로는 1등급과 2~3등급에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고 4~5등급과 6~7등급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음. 대체로 여성의 신용등급이 남성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대상자 평가 시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더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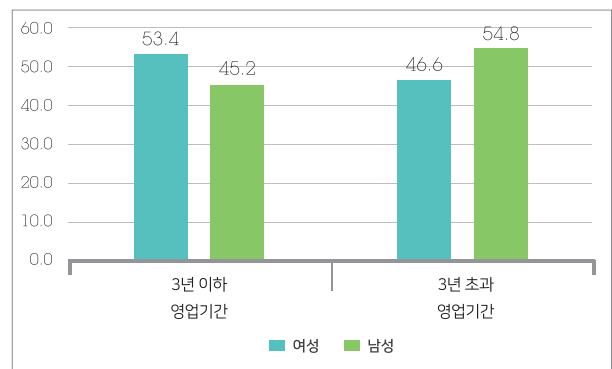


[그림 4] 2019년 신용등급별 신청자 비율

- 다음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신청금액 수준별 '신청금액 ≤ 2천만원', '2천만원<신청금액 ≤ 4천만원', '4천만원 < 신청금액 ≤ 5천만원' 구간의 신청자 비율을 살펴보니,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33.1%, 32.4%, 34.3%이고, 남성의 경우 각각 25.5%, 33.1%, 41.3%로, 여성은 신청금액 구간들 간 큰 차이 없이 신청자 분포가 비슷한 반면, 남성은 신청금액이 클수록 신청자 비율도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여성이 남성에 비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자금지원 신청자가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영업기간 3년 이하'와 '영업기간 3년 초과'의 영업기간별로 신청자 분포를 보니, 여성은 각각 53.4%, 46.6%이며, 남성은 각각 45.2%, 54.8%로 '영업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고 '영업기간 3년 초과'인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음. 여성이 남성보다 '영업기간 3년 이하'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창업 후 3년 이내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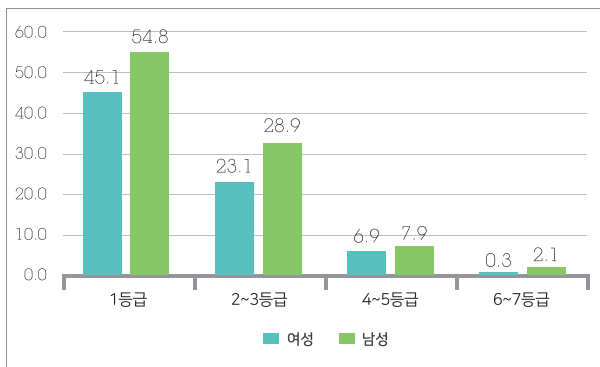


[그림 5] 2019년 신청금액 수준별 신청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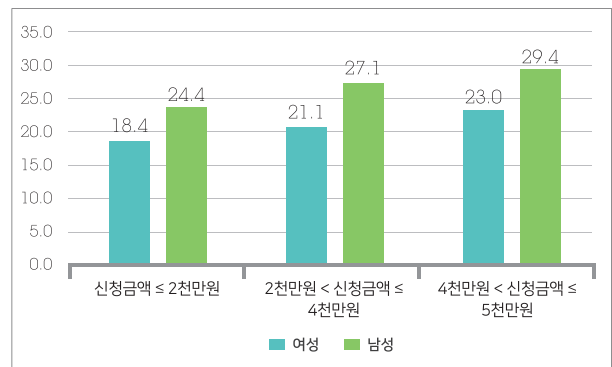


[그림 6] 2019년 영업기간별 신청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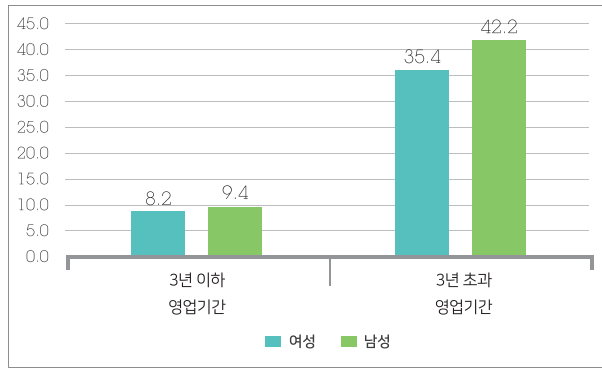
- 2018년~2020년 3년 간 신청자와 수혜자 비율을 보니, 신청자 비율은 대체로 여성 46%, 남성 54% 정도였고, 같은 기간 수혜자 비율은 여성이 약 40~42%, 남성은 약 58%~60% 수준이었음
-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용등급별, 신청금액 수준별, 영업기간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경우,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이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낮았음. 신용등급 구간들 중 특히, 3등급 이상의 높은 등급에서 성별 격차가 크고, 신청금액 수준별에서는 모든 구간들에서 약 6%p의 성별 격차가 있으며, 영업기간 3년 초과인 경우에 특히 성별 격차가 큼. [그림 10]에서 보듯이 연도별 신청자 대비 수혜율 역시 3년에 걸쳐 일관되게 약 6%p의 성별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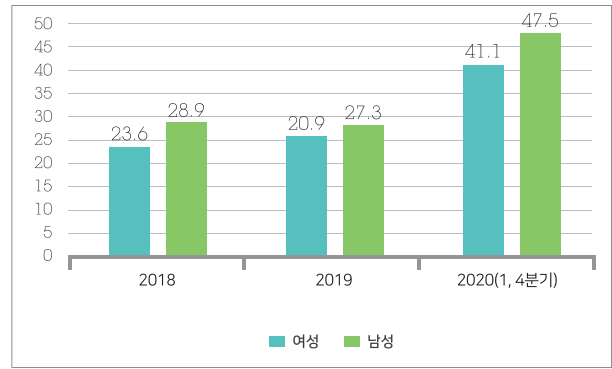
[그림 7] 2019년 신용등급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그림 8] 2019년 신청금액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그림 9] 2019년 영업기간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그림 10] 연도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 또한, 충북 소상공인 모집단 성비(2017년 여성 44%, 남성 56%)와 비교해 본 결과, 2018년 수혜자 비율이 여성 41.3%, 남성 58.7%이며 2019년 여성 40%, 남성 60%로 모집단 성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지원이나 여성 기업인에 우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고려할 때, 여성 소상공인의 수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4. 맺음말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충북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실태와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업추진의 방향과 지원과제에 대해 제언할 필요가 있음
- 충북 여성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운영에 타격이 큰 상황이며 폐업 및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았지만,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이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의 경우 신청자 대비 수혜율이 낮았으나, 남성의 경우는 신청자 대비 수혜율이 더 높았음. 여성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에 비해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임
- 여성 기업인에 우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업이 보다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을 통해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것, 남녀가 동등하게 인지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사업 홍보를 해야 하며,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실무자 및 시·군 담당 공무원, 소상공인단체 대상 성인지 향상 교육을 제안함

안중순 · 김가빈 · 이지영 · 김현정(2020). 「충북지역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요약 · 재구성함